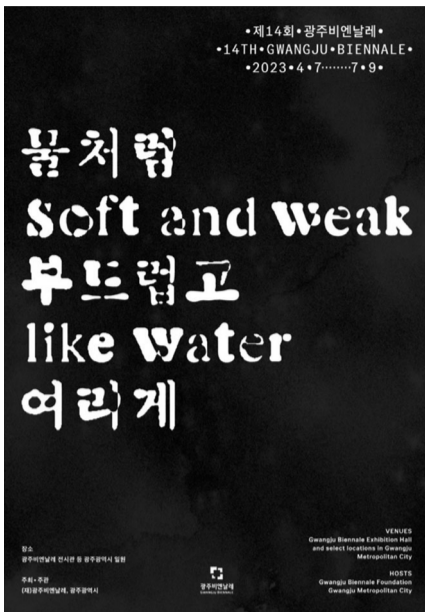


# 광주 전역이 문화예술 현장 ‘고품격 미술축제’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D-30

오늘 광주신세계 홍보관 개관 이달 중순부터 본격 작품 설치 역대 최대 ‘파빌리온’ 등 주목 고품질답례품 등 지역 상생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 간 열리며 개막 30일을 앞둔 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홍보관 개관식이 열린다.

(재)광주비엔날레는 본전시와 함께 부록 형태의 국가별 특별전시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여 광주 전역을 문화예술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 작품 설치 등 막바지 준비 분주

작품 설치 작업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1월부터 항공과 배로 작품 운송이 시작됐으며, 이달 초부터 작품이

속속 반입되고 있다. 본전시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등도 조성 공사 막바지에 있다. 메가폰을 잡은 이숙경 예술감독이 광주에 상주하면서 설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달 중순부터 신작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작가들의 광주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소주제별로 전시 공간이 구획되는데, 환경친화적 모듈 구조로 만들어지며 전시실 5에서부터 시작해 전시실 1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이 특징이다.

먼저 소주제 ‘은은한 광륜(Luminous Halo)’은 광주의 정신을 영감의 원천이자 저항과 연대의 모델로 삼는다. ‘조상의 목소리(Ancstral Voices)’는 전통을 재해석해 근대성에 도전하는 예술적 실천을 탈국가적으로 조명한다. ‘일시적 주권(Transient Sovereignty)’은 후기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미술 사상이 이주, 디아스포라 같은 주제와 관련해 전개된 방식에 주목한다. ‘행성의 시간들(Planetary Times)’은 생태와 환경 정의에 대한 ‘행성적 비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며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최장 기간 동안 광주의 다채로운 장소에서 펼쳐지는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연계 마케팅 진행

(재)광주비엔날레는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을 고려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최근 광주디자인진흥원과 협력해 ‘비엔날레 도시’ 광주를 위한 패키지 입장권을 개발했다. 지역민의 예술적 경험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합 입장권으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의 어른 기준 현장 구매 입장권을 각각 구입하면 3만2000원이지만, 통합 입장권은 31% 할인된 가격인 2만2000원으로 구입 가능하다.

아울러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이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과의 상생에 주력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이 답례품으로 등록됐으며, 기부자들은 사전 판매가 종료되는 공식 개막일인 4월7일 이후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입장권은 고향사

랑기부 10만원에 제공되는 답례품으로 어른 2장과 어린이 2장으로 구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숙박업체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도 진행한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홀리데이인 광주, 광주 유탑 부티크 호텔&레지던시, ACC DESIGN 호텔,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등의 숙박객에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일권 입장권 등도 마련했으며 개막 후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KTX 및 SRT 승차권과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패키지도 이달부터 판매되고 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개관식은 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개최된다. 개관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숙경 예술감독 등이 참석한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은 개막 전인 4월 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티켓 정보 페이지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네이버 예매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행사기간 내 현장 판매 입장권보다 최대 40% 가량 저렴하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전남문화재단이 지난해 주관한 ‘실버마이크’ 공연 모습. 전남문화재단 제공

## 전남문화재단 ‘실버마이크’ 주관 선정

### 60대 이상 예술인 공연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주관 단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실버마이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과 그 주간에 만 60세 이상 실버예술가들이 직접 만드는 공연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전남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전남권 주관단체로 선정돼 총 83명의 실버예술가들과 20회에 걸쳐 전남 곳곳에서 공연했

다. 올해는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까지 지역을 확장해 5월부터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전남에서 실버마이크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올해는 LED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버마이크’ 참여 예술가는 3월 말에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http://www.jncf.or.kr)에서 사업공모를 확인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 나주에 ‘디지털 복합문화관’ 들어선다

### 국립나주박물관, 17일 착공식 첨단기술 접목 문화서비스 제공

나주에 첨단기술이 접목된 고품격 문화공간이 들어선다.

국립나주박물관은 “2025년 완공 예정인 ‘디지털 복합문화관’의 착공식을 오는 17일 나주박물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나주박물관은 디지털 복합문화관을 통해 기존의 본관 건물에서 공간적 한계로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공연장, 어린이박물관, 미래형 수장고, 휴게 공간 등이 갖춰지게 되면 나주 반남면 일대에서 고분군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건물 연면적은 4393㎡로 주요 시설인 공연장은 300석 규모이다.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한 체험학습시설을 갖춰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미래형 수장고는 호남권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최신 설비와 보관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은화수 나주박물관장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이 지역 관광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해 지역과 함께 하는 국립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봄맞이 전시 ‘눈길’

5월7일까지 ‘비록 그럴지라도’ 김성결 등 4명 청년작가 초대 8월27일까지 ‘리틀 포레스트’ 윤종호 참여 어린이 예술전시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봄맞이 전시로 올해 첫 관객들을 맞이한다.

담양군문화재단은 오는 5월7일까지 기획전시 ‘비록 그럴지라도’와 오는 8월27일까지 어린이 예술전시 ‘리틀 포레스트’를 해동문화예술촌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비록 그럴지라도’는 청년작가 단체 전시로, 담양군문화재단은 이번 전시에서 여수 출신 김성결, 담양 출신 노여운, 대전 출신 노형규, 부산 출신 조정현 작가를 초대했다. 이들은 불확실한 현실에서 앞으로 도래할 세계의 틈을 각자의 매체 사용과 시선을 통해 탐색했다.

먼저 김성결 작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아에 대해 성찰해왔다. 최근에는 자신의 활동, 날마다 일어나는 행위, 일상에서 벌어지는 현상 등에 집중하고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매번 변화하며 고정되지 않은 흔들리는 자아를 마주한다. 그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개척하고자 한다.

노여운 작가는 도심에 있는 골목길에 주목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정취를 묘사한다. 노 작가는 골목에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의 어린이 예술전시 ‘리틀 포레스트’ 포스터.

서의 관찰을 통해 시간의 흔적과 사람의 경험, 삶의 방식 등을 표현했다.

노형규 작가는 자아의 단상으로서 ‘양(羊)’을 제시한다. ‘양’은 한때 권력과 통치를 상징했던 조각상과 대면되는데, 그림 속 ‘양’ 주변에 남아있는 구멍이나 절벽은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노 작가는 유의적인 단상을 통해 삶을 배우는 과정에서 결코 메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변치 않는 자신의 결합을 표현했다.

조정현 작가는 자신이 이번 전시회에서 의미 부여가 없는 덩어리를 관찰했다. 특히 박제 동물, 즉 장식물로서 박제 동물의 컬렉션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이야기했다.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

시는 청년작가들이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은 관계성과 활동을 위해 기획됐다”며 “관객은 다채로운 의미를 포착하고자 하는 이들의 작업 세계를 마주하고, 이들의 세계에 함께 뛰어들어 상상력을 발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문화재단은 어린이 예술전시 ‘윤종호 작가와 함께하는 리틀 포레스트’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연 2회 진행되는 예술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정원예술을 선보여온 윤종호 작가가 올해 상반기 콘텐츠를 채웠다.

‘자연’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잘 만들어진 것을 인식할 때도 ‘자연스럽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식물을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수목원을 방문할 때도, 가짜 조화로 구성된 실내 정원을 바라볼 때도 ‘자연’을 마주한 듯한 친숙함을 느낀다. 인위적 방법으로 구현한 ‘자연스러움’이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자연적인 구성물(식물)이 아닌 인공적인 구성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윤 작가는 인공물과 자연, 즉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화합을 통해 하나의 세계를 구현한다.

해동문화예술촌은 매주 월요일 휴관이며 전시 관람은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해동문화예술촌(061-383-8246)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